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고린도전서 —

최영숙*

1. 고린도전서 1:31

GNT ⁵	... ‘Ο καυχώμενος <u>ἐν κυρίῳ</u> καυχάσθω.
『개역개정』	... 자랑하는 자는 <u>주 안에서</u>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표준』	...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u>주 안에서</u>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00주년』	...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u>주님 안에서</u> 자랑하라” 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새한글』	... “자랑하는 사람은 <u>주님을</u> 자랑해야 합니다!”

1.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 『표준』, 『200주년 신약성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1.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들 중에서 CSB, ESV, NET, NIV 등도 ‘주 안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RSV 경우 처음에 ‘주님을 자랑하라’로 번역했던 것을, 개정판(NRS)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로 바꾸어 오히려 개정판이 본문의 의미와 동

* Johannes Gutenberg-Universitat Mainz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amoteme@wgst.ac.kr.

떨어져 있습니다. 독일어 역본들은 대부분(Elberfelder[이하 ELB], LB, EIN, ZB) ‘주님을 자랑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면 Münchener Neues Testament (이하 MNT)는 많은 역본들처럼 ‘주 안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의 주요 사상으로서 정형화된 문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연결된 동사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주 안에서’라고 번역한 듯 보입니다.

(2) 그럴 경우 ‘주 안에서’라면 모든 것을 자랑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하는 자랑은 허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그리스어에서 목적어로 올 수 있는 격(case)은 목적격, 여격, 소유격입니다. 또한 동사에 따라 ‘전치사+명사’도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동사 ‘καυχάομαι(자랑하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ἐν κυρίῳ를 ‘자랑하다’의 직접적인 대상인 목적어로 취급하여 ‘주님을 자랑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살려 줍니다.

(2) 고린도전서의 전체 문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교만과 자랑도 포함되기 때문에(고전 4:6-7; 8:1), 바울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 똑같은 문장 형태가 3:21에도 언급됩니다(μηδείς καυχάσθω ἐν ἀνθρώποις). ‘자랑하다’ 동사가 사람과 함께 쓰일 경우 우리는 ‘**사람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유독 ἐν κυρίῳ만 바울의 정형화된 문구 영향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4) 바울의 의도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를 말하려는 것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랑의 허용치를 남겨 두는 것이지만,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랑을 허용하지 않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5) 이 구절(1:31)은 3:21(μηδείς καυχάσθω ἐν ἀνθρώποις)과 함께 예레미야 9:23-24(9:22-23, LXX)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나란히 놓여 있는 두 구절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1(렘 9:24)과 고린도전서 3:21(렘 9:23)

에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에서 3장까지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주제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2. 고린도전서 7:1

GNT ⁵	Περὶ δὲ ὧν ἐγράψατε, <u>καλὸν ἀνθρώπῳ γυναικὸς μὴ ἄπτεσθαι</u> .
『개역개정』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u>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u>
『새번역』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u>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u>
『공동개정』	이제 여러분이 적어 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u>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u>
『새한글』	여러분이 써 보낸 것들에 대하여 <u>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들 한다지요</u>

2.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모두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바울의 말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더욱이 ‘~에 대해 말하면’, ‘~말하겠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바울의 말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한글』만이 따옴표와 ‘~라고들 한다지요’를 사용하여 바울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인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 ESV, NET, NIV, NRS, CSB 등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에 대해 따옴표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쓴 내용으로 파악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 역본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린도 교회가 쓴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MNT, ELB, ZB). 반면 독일어 LB는 ‘~에 대해 내가 대답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바울의 말인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를 바울의 말로 번역하는 것은 바울을 금욕주의자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2)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번역이 생겨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바울은 당시 사회와는 다르게 시대를 앞질러 민족 차별, 신분 차별, 성 차별의 타파를 외치던 혁신적인 사도였습니다(참조, 갈 3:28).

(2)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소식을 통해서’ 듣거나(1:11; 5:1; 11:18), 또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거나 편지를 쓴 내용에 대해 *Περὶ ᾧ* (~에 대하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7:1, 25; 8:1; 12:1; 16:1, 12).

(3) 7:1도 *περὶ δὲ ᾧ ἐγράψατε*(여러분이 쓴 내용에 대하여)라는 것을 다루며,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곧 바울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일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2절부터 진행됩니다(‘그러나’로 시작). 역본들 중에서 바울의 말이 아닌 것으로 번역된 것은 우리말 역본 중에서 『새한글』뿐입니다.

3. 고린도전서 14:13

GNT ⁵	διὸ ὁ λαλῶν γλώσση προσευχέσθω ἵνα διερμηνεύη.
『개역개정』	그러므로 방언 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새번역』	그러므로 방언 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공동개정』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 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새한글』	그러므로 신비한 언어 로 말하는 사람은 그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 차이점 관찰

그리스어 *γλώσσα*에 대해 『개역개정』와 『새번역』은 ‘방언’으로, 『공동개정』은 ‘이상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신비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 ESV, NET, NIV, NRS 등 대부분은 ‘혀(tongue)’로 번역했고, CSB는 ‘다른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역본에서 EIN, LB, ZB는 ‘혀(Zunge)’로, MNT는 ‘혀의 언어’로, ELB는 ‘어떤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그리스어 γλῶσσα의 원래 뜻은 ‘혀’이기 때문에 번역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혀로 말한다’는 것은 종교적 현상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2) ‘혀로 말한다’를 그대로 번역할 경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소통이 되는 언어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γλῶσσα는 바울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12-14장에서만 사용되며(21번),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던 사항입니다.

(2)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혀로 말한다’는 원문의 뜻을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보통 ‘어느 한 지방에서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언어’(『공동개정』)도 본문의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 고린도전서 14:2는 γλῶσσα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곧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신비한 언어’(『새한글』)가 독자들에게 가장 잘 소통되는 번역을 제공합니다.

(4) 『새한글』은 γλῶσσα에 대해 ‘신비한 언어’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맥에 따라 다양한 번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행 2:4; 계 5:9; 7:9; 10:11), ‘성령님의 언어’(행 10:46; 19:6)입니다. 또한 ‘혀’(빌 2:11; 약 1:26; 3:5, 6; 뱀전 3:10; 요일 3:18)로도 번역되었습니다.

4. 고린도전서 14:4

GNT⁵

ὁ λαλῶν γλῶσση ἑαυτὸν οἰκοδομεῖ· ὁ δὲ προφητεύων
ἐκκλησίαν οἰκοδομεῖ.

『개역개정』	방언을 말하는 자는 <u>자기의 덕을 세우고</u> 예언하는 자는 <u>교회의 덕을 세우나니</u>
『새번역』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u>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u> , 예언하는 사람은 <u>교회에 덕을 끼칩니다</u> .
『공동개정』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u>자기 자신을 도울 뿐이지</u> <u>만</u>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u>교회에 도움을 줍니다</u> .
『새한글』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u>자신을 세웁니다</u> .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u>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워 줍니다</u> .

4.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로, 『새번역』도 비슷하게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로 번역하여 ‘세우는’ 대상을 ‘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개정』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번역하여 ‘세우다’라는 동사를 ‘도움을 줍니다’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워 줍니다’로 번역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 대부분은 ‘교회를 세우다’로 번역하여 세우는 대상을 교회로 번역했습니다(CSB, ESV, NET, NRS). 마찬가지로 독일어 역본들도 대부분 ‘교회를 세우다’로 번역했습니다(EIN, ELB, LB, MNT, ZB).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그리스어 ‘οἰκοδομέω(세우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1에서 ‘사랑은 세워 줍니다(ἡ δὲ ἀγάπη οἰκοδομεῖ)’라는 구절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말 역본들은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로, ‘덕’이란 말을 추가하여 목적어를 임의로 만들어 번역했습니다(10:23도 마찬가지).

(2) 그런데 14:4의 경우 οἰκοδομέω가 2번 다 목적어가 있는데도 8:1과 10:23의 경우처럼 문장에 없는 ‘덕’을 추가하여 목적어로 번역했습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움’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14장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 또는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14:3, 4, 5, 12, 17, 26).

(2) 다른 사람을 세워 주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자신만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분열로 이끌어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평화의 하나님(14:33)의 뜻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1세기 초기 교회에서 ‘교회(ἐκκλησία)’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가리킵니다.

(3) 이런 의미로 볼 때 ‘세움’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곧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덕’을 세운다든지, 교회에 ‘덕’을 끼친다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아주 많이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세워 줍니다.’(『새한글』)라는 번역이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고린도전서 16:3

GNT ⁵	… οὓς ἐὰν δοκιμάσητε, δι’ ἐπιστολῶν τούτους πέμψω ἀπεινεγκεῖν τὴν <u>χάριν</u> ὑμῶν εἰς Ἱερουσαλήμ·
『개역개정』	… <u>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u> 편지를 주어 너희의 <u>은혜</u> 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새번역』	… 그 때에 <u>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u>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u>선물</u> 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공동개정』	… <u>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u> 내 소개 편지와 여러분의 <u>성금</u> 을 예루살렘으로 가져 가게 하겠습니다.
『새한글』	… <u>여러분이 검증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u> 편지를 써 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낼 겁니다. 바로 이들이 여러분의 <u>헌금</u> 을 그리로 가져가도록 말입니다.

5.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인정하다’로, 『새번역』은 ‘선정하다’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검증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다’로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 대부분은 ‘인정한 사람’이란 뜻으로 번역했습니다(ESV, RSV, NRS). CSB의 경우는 ‘추천하는 사람’으로 번역하여 본문의 의미와 가장 멀리 있습니다. 독일어 역본 ELB과 LB는 ‘증명된 사람’, EIN은 ‘추천하는 사

람’이란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 (1) 이 본문(고전 16:1-4)은 헌금(정확하게는 모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2) 헌금을 다루는 일은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인정하고’, ‘추천하고’, ‘선정하는’ 것보다 의미가 더 분명한 ‘검증해야 하는’ 것을 의도했으리라 짐작됩니다.

5.4. 본문 해설을 통한 신학적 고찰

- (1) 바울이 δοκιμάζω/δοκιμή를 언급할 때는 주로 ‘검사하여 증명하는’ 것, 곧 ‘검증’이란 의미로 사용합니다.
- (2)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는 일이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다. 특히 고린도후서에 비추어 보면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이 하는 일들에 대해 사사건건 비난을 쏟아내는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바울의 헌금 모으는 일을 두고도 횡령한다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참조, 고후 12:16-18).
- (3) 이런 상황 때문에도 바울은 헌금을 다루는 일에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헌금 전달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도 책잡히지 않을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검증합니다(참조, 고후 8:20). 따라서 바울은 기존의 번역처럼 교회가 추천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선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 (4) 또한 χάρις가 소개된 기존 역본들에서는 주로 ‘은혜’, ‘선물’, ‘성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한글』만이 본문의 의미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헌금’으로 번역했습니다. 16:1의 λογεία는 ‘모금’이라는 뜻이며, 오늘의 헌금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주제어>(Keywords)

고린도 교회, 자랑, 분열, 신비한 언어, 예언.

Corinthian Church, boasting, division, spiritual language, prophecy.